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5년 10월 15일(수)

관련자료: 사진자료

현대차그룹, APEC 정상회의 공식 의전차량 지원

- 현대차그룹, 15 일(수)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공식 의전차량 지원 협약 체결
... 31 일~11 월 1 일 경주서 정상회의 개최... 21 개 회원 정상 및 대표단 등 참석
... 29 일~30 일 진행되는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도 공식 의전차량 지원할 예정
- 제네시스 G90 및 G80, 수소전기버스, 모바일 오피스 버스 등 차량 총 192 대 제공
- 성공적인 회의 진행 위해 주요 인사 의전 및 다양한 행사 지원에 차량 활용될 계획

현대자동차그룹이 20년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식 의전차량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수)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과 배우자 의전을 위한 ▲G90 113대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의전을 위한 ▲G80 74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대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 등 총 192대의 차량을 제공, 성공적인 행사 진행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 정상과 정부 대표단, 경제계



PRESS RELEASE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통상·외교 등의 분야별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만에 국내에서 열리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을 주제 및 중점과제로 진행된다.

정상회의에 앞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APEC 회원 장관급 각료들이 모여 외교 및 통상 분야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도 경주에서 함께 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주요국 정상과 각료, 기업 CEO 등이 한데 모이는 외교 무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현대차그룹 차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상품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GPO 김일범 부사장은 “20년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현대차그룹 차량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10월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재무장관회의’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를 비롯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APEC 에너지장관회의’ 등 APEC 정상회의 외에도 올해 중 국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APEC 관련 고위급 및 장관급 회의에 연이어 의전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PRESS RELEASE

이 밖에도 현대차그룹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서울)’ ‘2023 G20 뉴델리 정상회의’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자카르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인천)’ ‘2022 G20 발리 정상회의’ 등 국내·외 주요 국제행사에 의전 및 운영차량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끝]

<사진 설명> 현대차그룹, APEC 정상회의 공식 의전차량 지원

사진 1) 제네시스 G90

사진 2) 제네시스 G80